

## 안치운의 『연극, 기억의 현상학』을 함께 읽기 위한 메모

조만수

1.

2015년 『연극, 몸과 언어의 시학』에 이어, 2016년, 안치운은 또 다른 책 『연극, 기억의 현상학』을 내놓았다. 두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항상 연극을 정의하고자 한다. 안치운이 ‘연극’을 정의하는 방식은 ‘연극’이라는 단어 그리고 개념을 잘게 부수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항상 단어를 쪼개어 덧대어진 말들을 해집고 최초의 단어, 어원의 흔적을 찾듯이 8편의 평론집을 쓰면서 항상 안치운은 연극의 기원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연극의 기원을 찾는 여정은 순탄하지 않다. 그 길은 독백으로 가득 찬 외로운 길이며, 앞서 간 이의 발자국이 없어 헤매고 제자리를 맴돌게 되며, 때로 기원이라는 그곳이 정말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회의의 길이기엔 멈추어 서고 주저앉게 된다.

멈추어 설 때마다 안치운은 자신의 앞을 위해서가 아니라, 뒤를 위해 이정표를 세운다. 뒤를 위한 이정표는 자신이 헤매고 헤매어 크게 돌아온 길, ‘정처없음’의 마디들, 그 기억이다. 그렇기에 뒤에 오는 자에게 안치운의 이정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가 가는 곳의 위치를 안치운 자신도 모르기에 그는 타인에게 유용한 길찾기의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안치운은 지도를 그리는 자가 아니다. 60세에 이르러 백발이 가득한 안치운은 가달지 못하는 기원을 향해서, 광야를 맴돌며, 자신을 향한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다. 광야에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른 채, 헤매는 늙은 한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면, 그는 이렇게 오이디푸스의 한 구절을 중얼거리고 있다.

“그토록 오래 묵은 죄의 희미한 자취를 이 넓은 천지 어디에서 찾으란 말인가?”

안치운은 수수께끼를 푼 현자가 아니라, 광야를 떠도는 자, 고통스러운 몸으로서의 오이디푸스가 되기를 원한다.

2.

그가 윤영선에 대한 글에서 인용한 한 구절을 다시 인용한다면 연극의 기원을 찾아가는 글쓰기의 도정 속의 안치운의 “가방 속에서 책이 나온다. 또 책이 나온다. 계속 나오는 책에는 모두 핏자국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치운의 책에는 핏자국도 남아있지 않다. 그가 세운 이정표는 일종의 무덤이다. 핏자국이 사라진, 주검이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무덤이다. 그의 표현을 따른다면, 그것은 고인돌이다. 무덤 혹은 고인돌은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이다. 책의 목차를 잠시 본다면 ‘기억의 현상학’이란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오류에서 진실로, 죽음에서 삶으로」, 「죽음과 애도의 글쓰기」, 「한국 현대 연극과 죽음의 언어」.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망각과 사라짐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다는 것, 그것은 그러므로 모순적인 조합의 단어들이다. 죽음 자체가 사라짐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음이래 명하는 것은 ‘죽은 것’과는 다른 것이다. 죽은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 물질성을 지닌 것이다. 죽음은 물질성이 아니다. 안치운이 여러 편의 책을 쓰면서도, 작품 리뷰가 극히 제한

적인 것은 그는 하나의 작품의 생성과 소멸을 기록하고, 해설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죽은 것에 관한 기록이다. 죽음은 하나의 개념이다. 죽음은 부재이다. 그런데 부재를 통해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반대항으로서의 삶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존재의 한 쌍의 개념이다. 부재함은 마치 부활한 존재가 남긴 무덤과 같은 것이다. ‘그는 여기에 없다’는 것, 그것은 그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 3.

죽음에 대해 안치운이 적은 몇 구절을 인용해 보자. 이 구절을 함께 읽는 것이 우리가 안치운의 글을 다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가 죽음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윤영선은 삶과 책과 그리고 연극이 휘발되어가는 지금, 여기, 이 야만의 시대에, 죽이는 사람이 그대로 있고, 죽이는 공간인 도살장이 형태와 이름만 바뀐 채 도서관 또는 극장이 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대상(책과 연극, 그리고 삶)은 날로 늘어난다고 말하는 것이다.(『죽음과 애도의 글쓰기-윤영선 희곡연구』, p. 297)

연극 속 죽음이란 인물들이 죽어 다시 이 세계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다. 일상에서의 죽음이 영원히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라면, 연극 속 죽음은 죽음의 제의이면서, 이를 통한 죽음의 현존이다. 죽음이든 재현된 죽음이든 그것은 결여의 상태를 뜻한다. (『한국 현대 연극과 죽음의 언어-기국서 연구1』, p. 315)

연극 속 죽음은 움직이지 않아 고정된 것이기도 하고, 중단된 움직임이기도 하다. 그것이 연극의 순간이다. 죽을 운명을 타고난 메두사의 입을 크게 벌린 얼굴처럼, 공포로 울부짖는 죽은 신의 얼굴처럼, 일상의 아름다운 삶이 자유로움과 살아있다는 행복의 사이라면, 죽음은 그 정반대, 즉 어둠 속에 빠지는 일이다. 연극 속 죽음은 인물들이 자신의 어떤 ‘사각지대’에 빠지는 일이다. 그때 인물은 비로소 절대적인 ‘혼자’가 된다. 기국서가 다시 의식을 붙잡고 연극할 때는 언제인가? 연극으로 다시 제 죽음을 증거할 때는 언제인가? (p.315)

### 4.

없으면서 있는 ‘죽음’은 안치운에게는 연극과 등가의 것이다. 연극은 허구이면서 실제이고, 있으면서 다시 사라지는 것이다. 죽음과 등가의 것으로 연극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한 것, 불멸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한 기록을 안치운은 비명이라고 부른다. 비명은 죽은 자에 대한 글이며, 죽은 글이다.

안치운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기억의 ‘현상학’이라 제목을 붙이는 것은 죽음-연극이라는 것의 본질에 다다른 인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빛으로 멀어지는 것이다. 연극이 조명과 환호 속에서 살아가려 할 때, 연극은 빛의 허구 속에 빠져든다. 그것은 죽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을 대치하는 좀비들의 연극이 된다. 시각

적인 것이 강조되는 연극이 바로 그것이다.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감정을 고양시키는 연극 또한 허구를 삶이라고 주장하는 연극이다.

연극은 한 때 빛나던 허구들을 어둠 속으로 넣는 것이며, 그 어둠 속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 삶을 만나는 것이다. 빛처럼 타오르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지만, 그 사이 무엇인가 존재론적인 변화를 겪는 것이 연극이다. 연극의 이와 같은 과정을 '제의'라 부른다. 죽음을 거치지 않는 제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5.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를 공간화한다면, 그것은 '귀향'이다.

죽음의 공간은 공간은 안치운의 어휘 속에서는 무덤, 광야, 오지, 기원이다. 무덤을 위의 인용문에서 안치운은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그 사각지대는 무덤의 구멍이며, 관이며, 사각의 블랙박스인 극장이다. 동시에 그곳은 사원이다. 그가 찾는 것은 결국 제의로서의 연극, 사원으로서의 극장이다.

부재-현존의 공간을 향해 가는 운동성, 그것이 '귀향'이다. 부재-현존의 지점이 기원이며 오지이다. 안치운이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의 작품 속에서도 특히 『사막으로의 귀환Le Retour au désert』을 좋아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기원은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광야 혹은 사막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귀향하는 곳, 그곳은 사막, 광야이다.

기원으로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루어지고, 반복하는 움직임이다. 또한 기원으로 가는 길은 그로부터 도래했으므로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지점이다. 과거인 미래인 시간이며, 겪지 않았지만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다. 위치가 없는 이 곳, 이제는 사라진 연극, 죽음으로서만 자신을 증명하는 연극으로 되돌아가는 행위가 안치운의 글쓰기이다. 다시 오이디푸스를 만난다. 눈 멀어 앞을 보이지 않고 그는 지팡이에 의지 하고 길을 걷는다. 굶은 발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고통스럽다. 그의 가방에서 책을 한 권씩 꺼낼 때마다 우리는 안치운의 아픔과 만나는 것이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 외딴 곳처럼 여겨지는 사각지대는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이며, 기억을 보는 장소이다. 보는 것, 보는 장소-여기서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 그리스어로 노에시스인데, 이 단어는 되돌아간다는 뜻의 그리스어 노스토스와 어원이 같다. 노에시스, 즉 생각하다, 인식하다, 그것은 아쉬워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눈 앞에 없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환각으로 볼 때 고통algos과 굶주림이 생긴다. 향수nostalgie란 되돌아가는nostos 아픔algos이다. (『연극치료에서 기억의 문제-기억공간과 극장공간』, p. 502)